

애 착 심



朴 演 求

〈수필가〉

나는 편지를 쓸 때도 원고지를 사용한다. 무슨 글을 쓰든지 원고지를 펴놓고 써야 생각이 잘 풀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원고를 쓸 때 원고지에 쓰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이른바 워드프로세서라는 걸 사용해서 원고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타자기를 사용해서 원고를 쓰는 사람만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기에 더욱이나 워드프로세서라는 걸 사용해서 원고를 쓰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둘째고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버릇 들이기에 달렸다고는 하지만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불가능한 일로만 여겨진다. 그것이 펜으로

원고지 위에 일일이 쓰게 되는 수공업적 방법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기를 조작해서 원고를 쓰는 작업은 시도조차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산업사회에 살아가려면 갖가지 기기를 조작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손재주가 없기도 하지만 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바가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에 조작이 간단한 기기에 대해서도 사용하지를 주저한다. 아무리 손재주 없고 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지라도 전기가 나가면 두꺼비집을 열고 휴즈 정도 갈아 끼울 줄은 알아야 할텐데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사소한 일로도 전화사 사람을 불러오고 해서 집사람한테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언젠가 전화사 사람이 떨어진 것을 갈아 끼워주고 가면서, 이런 정도는 아저씨가 못하면 아주머니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웃으면서 말하고 간 이후로 간단한 것은 집사람이 손을 고쳐 놓는다. 구경만 하고 있기가 미안해서 어쩌다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면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말리기부터 한다. 언젠가 천정의 형광등 자리를 옮겨 다느라고 못질을 하다가 손가락만 깨는 것을 보고는 아예 못할 사람으로 제쳐놓고 있다. 경험자

는 짐작하시겠지만 고개를 젓히고 천정에 못을 박는다는 것이 어디 그리 마음대로 되던가 말이다. 남이 하는 것을 보면 쉽게 보이는 것도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

어느 잡지에서 만화가 K씨가 쓴 수필을 읽고 매우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여기 소개할까 한다. 수필 제목이 ‘무능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기억되는데 K 선생도 나처럼 기기에 대해서는 통 지식이 없는 모양인지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그 글에서 부인의 한 말이 두고두고 미소를 짓게 한다. “당신은 만화 그리는 일 말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있소!” 나는 그 글을 보고 K 선생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부인한테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 말이다. K선생이 하는 일, 만화 그리는 일에 대해서는 부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

나의 이 글을 집사람이 읽게 되면 섭섭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고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이미 K선생 부인이 한 말처럼 “당신은 수필 쓰는 일 말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있소!”하고 눈으로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 들은 모양이라고 말이다. 짐짓 말해본 것뿐 사실 나 역시 집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그런 말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집사 은 평소 나의 손재주 없음에 대해서 체면에 손상이 갈 정도로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재주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태연하게 여기고 있는 듯이 대해 주었기에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해 전에 친구한 사람도 듣기 좋도록 덕담한 마디를 해 주었다. “자네는 수필 쓰는 일하고 딸 낳는 일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동안 딸들에 대한 얘기를 수필로 쓴 것이 많다. 요즘은 그 딸들이 낳은 외손녀에 대해서 수필로 쓰기를 즐겨하고 있다. 그래서 불출이란 말을 듣고 사는지도 모른다.

이제 사위에 대해서 쓸 차례가 된 것 같다. 외손녀를 키워주고 있으니까 주말이면 딸 내외가 집에 온다. 나는 주말에 딸이 오는 것도 반가웠지만, 사위가 오는 것이 더 반가웠다. 휴즈가 끊어져서 나가거나 집의 어디를 손 보아야 할 일이 생겨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웬만한 전기 고장쯤 척척 손을 보아 고쳐놓는 사위가 집사람 눈에도 적이 든든하게 여겨지는 모양이다. 나의 눈에는 손수 운전을 하고 딸과 함께 살아오는 큰사위가 대견해 보이고,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쓰고 있다는 작은사위도 대견해 보인다. 요즘 세상에 간단한 전기고장을 고치고, 자동차운전을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쓰는 일쯤 조금도 대견한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일을 전혀 못하는 사람만큼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견한 생각

을 가지고 있다. 나의 사위들이 그런 일을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나의 사위들이 한가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새로 사온 우리집 사진첩에는 외손녀의 사진들이 여러 장 붙여져 있다. 큰딸이 낳은 외손녀의 사진도 그렇지만 작은 딸이 낳은 외손녀의 사진이 사위들에게 의아함을 갖게 한 것이다. 똑같은 사진기로 찍은 사진도 어찌하여 자기들이 찍은 아기의 모습과 아기 외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다른 것일까. 다시 말하면 아이 외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훨씬 잘 찍혀있다는 것이다.

사진이란 피사체에 대해서 무조건 샷터만 누르면 찍혀진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다. 앵글을 어떻게 조작하고 피사체의 어느 순간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 효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도 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반복 조작에서 오는 자기 터득이 있어야 한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피사체에 대한 지극한 애착심이 있어야 한다.

한번도 고백한 일이 없지만 나는 한때 고향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닌 일이 있다. 무명작가시절, 아니 습작시절, 카메라를 가지고 나의 헛헛한 젊은 시절을 어느 피사체를 향해서 진한 애착심으로 샷터를 조작한 경험이 오늘날 조금 쓰는 일에 밑받침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